www.GungPlant.co.kr
시원하게! 편안하게! 부드럽게! 진료하는
궁플란트치과의원
TEL. 02-722-2870 조계사 앞 사거리,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 앞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0-중-1905호

佛敎新聞

불교서적 총판 법우당
불교 서적 · 음반 도매 / 불교서점 운영 및 개설 상담
☎ 02)994-4437, fax 02)994-4438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불기 2555년 9월 10일 (2011년 / 단기 4344년 음력 8월13일) 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750호 토

조계종과 조불련은 지난 5일 북측 묘향산 보현사에서 '팔만대장경 1천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북남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방북단 37명과 심상진 위원장 등 조선불교도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화 연합뉴스

조계종, 난제 푸는 주역으로 서다

뉴스분석

조계종이 악화일로로 치닫던 남북관계의 숨통을 텄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묘향산 보현사에서 조계종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팔만대장경 판각 1000년 기념 남북합동법회를 봉행했다고 보도했다. 법회는 불교예식과 내빈들의 치사에 "대결 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자"는 내용의 공동발원문 봉독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총무부장 영담스님, 사회부장 혜경스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인명진 목사 등 37명의 대표단은 합동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3일 출국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공항에 발을 디뎠다. 이번 남측 인사들의 방북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과 천안함 침몰사건 등으로 인해 우리 정부가 남북교류의 전면 중단을 선언한 지난해 5·24 조치 이후 처음이다.

집권 후반기 새로운 국정 지지대를 구축하려는 남한 정부나 대북지원 재개를 원하는 북한 정부 모두에게, 남북관계의 복원은 공통의 희망사항이었다. 그리고 소통의 중심에 조계종이 있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경우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남한의 대북지원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된 데다 이명박정부 역시 개각 이후 남북관계에서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비정치적인 분야의 교류를 통해 정치적 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조계종의 성과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조계종 '5·24' 조치 이후 첫 방북
불교계 주도 민간교류 활성화 기대

특히 고려대장경이라는 민족유산을 매개로 한 문화교류로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불교계 주도의 민간유대가 활성화되리란 기대도 크다. 남한 정부는 '5·24' 조치에 의거, 방북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다만 민간단체의 수해복구 지원이나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과 같은 인도적 지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다. 민족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의 오랜 국정기조였다. 불교에 대해서도 전통문화 창달과 승병의 활약 등 오랜 세월 민족과 고락을 같이 한 종교라는 관점에서, 다른 종교에 비해 호감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남북합동법회에서도 양측은 발원문에 "팔만대장경을 더욱 잘 보존하자"는 의지를 담았다. 일례로 금강산 현지에 4년간 머물며 신계사 복원을 지휘했던 제정스님(중앙종회의원)은 "당나라의 힘을 빌어 삼국통일을 이룩한 김유신에 대해선 비난하는 반면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한 서산스님이나 사명스님, 일제에 맞서 싸운 만해 한용운 스님은 위인으로 칭송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정서"라고 전했다. 아울러 "부처님의 가피로 국난의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팔만대장경 역시 국민통합의 결정체"라며 "불교가 남북화해의 실마리임이 자명한 만큼 종단이 이를 위한 이론적 토대와 실천적 역량을 갖추고 주도적인 입장에 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조계종 대표단의 방북은 깜짝 이벤트가 아니라 오랜 준비와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박수를 받을 만하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취임 후 3개월 뒤인 지난해 1월말 북한을 찾아 조선불교도연맹과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때 신계사 참배 활성화, 평양 용화사 공동복원, 남북 주요사찰 자매결연, 대장경 1000년 축전 초청, 평양 시내 인도적 지원시설 건립 등의 5가지 합의사항을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남북관계의 급격한 경색으로 실행이 미뤄졌으나, 이번 방북으로 탄력을 받으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오는 23일 개최되는 대장경 1000년 축전의 북한 불교계 인사 참석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지홍스님은 "불교계가 민족문화유산을 공통분모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총평했다.

3면에 계속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지면안내

무사 백동수 출연 안석환 6면

팔만대장경 홍보대사 이희아 7면
지구촌공생회 몽골 방문 12면
북섹션 13면 14면 15면

승가대학도 이제 '스마트' 한 시대

청암사 승가대학 '스마트 캠퍼스' 구축
승가대학 최초 전자수업 시스템 도입

깊은 산중의 강원이 '스마트' 한 불교를 이끈다. 김천 청암사 승가대학(학장 지형스님)과 율원은 전자수업 시스템을 도입, 승가 기본교육기관 최초로 스마트 캠퍼스(Smart Campus)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청암사(주지 상덕스님)는 지난 4일 대웅전 마당에서 스마트 캠퍼스 구축 및 '참살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시연식을 갖고, 전자수업 시스템을 선보였다. 이날 시연회에는 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 성웅스님,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법인스님을 비롯해 청암사승가대학장 지형스님, 청암사 주지 상덕스님, 박보생 김천시장 등 300 여명이 참석했다.

스마트 캠퍼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 수업을 듣고, 과제를 제출하고, 교수와 의견을 교류하는 양방향 전자수업 시스템이다. 청암사 승가대학은 지난 8월25일 2학기 개강 후 스마트 캠퍼스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암사 스마트 캠퍼스에는 학년별로 수업게시판이 마련돼 있으며, 과제물정보와 강의 동영상, 강의 자료를 볼 수 있는 강의게시판 등이 구축돼 있다. 덕분에 학인 스님들은 각 게시판에 등록된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동영상 강의를 보는 것은 물론 교재도 복사하거나 따로 출력하는 대신 다운로드 받아 보는 것도 가능하며, 사중 어느 곳에서나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해 원하는 장소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학인 스님들 직접 제작한 태극권 사찰음식 콘텐츠 활용해 '참살이' 어플 개발

스마트 캠퍼스에 대한 학인 스님들의 반응은 뜨겁다. 스님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공부할 수 있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됐다며 좋아했다. 율원 2학년에 재학 중인 명행스님은 "그동안 과제를 제출하려면 율원 컴퓨터실을 사용했는데 여러 스님들과 공유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리포트를 작성하고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학장 지형스님은 "학인 스님들의 정보활용 능력이 뛰어나 수업 준비나 복습에도 열심히 활용하고 있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교육을 병행해 스님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청암사 참살이' 어플리케이션도 함께 개발했다. 어플리케이션에는 우슈와 유미정사 식단, 걷기명상 등에 대한 해설과 동영상이 포함돼 있다.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은 전부 청암사 승가대학과 율원 학인 스님들의 작품으로, 촬영, 편집부터 연기와 내레이션까지 모두 직접 했다.

주지 상덕스님은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무한대임에도 불교 어플리케이션이 많지 않아 개발하게 됐다"며 "청암사 '참살이'는 태극권과 사찰음식, 걷기명상 등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 법을 전할 학인 스님들이 승가대학에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익힌다면 전법교화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천=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社告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 공식 발행하는 불교신문이 창간 반세기를 넘었습니다. 미디어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상황에서 소임을 다하고 신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독자와 불자들의 아이디어를 지면에 반영해 신문을 쇄신하려고 합니다. 한국불교의 중흥과 불교신문의 변화를 염원하는 많은 분들의 참신한 기획안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아 래 -

- **제 목** : 제1회 불교신문 연재물 기획안 공모.
- **내 용** : 제목 + 취지 + 연재기간 + 인적사항(연락처) 등을 포함한 불교신문 연재 기획안 (최소 6개월 이상의 연재물)
- **접 수** : webmaster@ibulgyo.com
- **마 감** : 10월9일 오후 5시.
- **당선작 발표** : 10월25일 불교신문 홈페이지
- **시상 내역**
  - 최우수 기획상 1명 상금 50만원 + 총무원장 스님 선물(순금 핸드폰고리 1개)
  - 우수 기획상 3명 10만원권 상품권 또는 소장용 목판 <반야심경> 12만원 상당
  - 참여 기획상 10명 <부처님 생애> 1권씩 (응모자 가운데 추첨하여 10인 선정)

※채택된 기획안은 신문사 내부 논의를 거쳐 필자를 선정합니다.

불교신문 사장 수불

화쟁아카데미 2기 개강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스님)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스님)가 공동 주최하는 화쟁리더십아카데미 제2기 입학식이 지난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입학식은 교장 도법스님의 인사말에 이어 아카데미 1기 수료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화쟁리더스포럼 이상훈(한국전기안전공사 상임감사) 대표의 축사, 원로의원 고우스님의 '한국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2기 과정에는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스님, 목동청소년수련관장 지완스님, 이송자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등 총 50여명이 등록했다. 화쟁리더십아카데미 2기는 오는 11월28일까지 총 11주이며, 소통과 화합의 대안을 주제로 한 각계 명사들의 강의가 이어진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5,000만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경제적인
상조회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신뢰와 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재향군인회의 독립법인으로 자금 운영에 있어 별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수납된 회원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 1금융권에 전액 예치운영, 재무건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상조회사를 선택하시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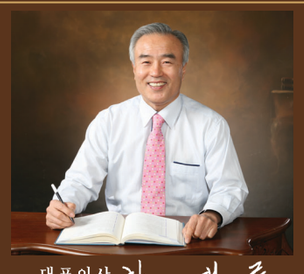
-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및 공정위 (http://ftc.go.kr) 홈페이지에서 상조회사의 총괄적인 재무상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또한 회원비 수납액이 타목적 투기성 투자(주식 · 펀드 · 부동산)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 의전(장례행사) 직영화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회사가 직접 의전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향군인회 상조회는?

-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수납된 회원비는 주식 · 펀드 · 부동산 등 타목적 투기성 투자를 일체 배제합니다
- 회계의 투명화로 수납된 회원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액 제 1금융권에 예치하였습니다
- 고객환금의무액인 유동성 자금을 112%보유(효림회계법인 2011년 2월 28일)하고있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 13개 시 · 도회 의전 직영운영으로 전국 어디서나 전문화된 최상의 의전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투명한 회계관리와 자금관리를 통하여 公益을 추구하여 왔으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사회공헌기업, 소비자만족기업, 사회혁신기업, 고객감동우수기업 등으로 인증받고 있습니다
- 私益이 아닌 公益을 추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상조회

경영이념
고객제일, 품질제일, 최고의 서비스
경영원칙
正道經營과 法과 倫理 준수
핵심가치
고객제일 인재제일
투명하고 올바른 가치관 확립
변화에 대한 과감한 혁신



대표이사 경영지도사 한 재 룡

5,000만 국민 누구나
- 가입문의 : 1577-0720
- 장례접수 : 1688-1990
- www.korvafamily.com

중요정보 고시사항 1.중도해약환급금 및 환급기준 가. 회원약관 제15조 제 규정에 의함 나. 환급금액은 신청일부터 제 3영업일 이내에 환급 다. 만기 3개월 후 해지시 납입금액의 100% 환급 2. 소비자 분쟁시 분쟁의 해결기준 공정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함 3.주요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 가. 수의 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 및 원산지 • 원사의 종류 : 대마 100%(중국산) • 원단의 제조 방법 및 제조지역 : 수직 국내 / 안동 나. 관의 재질 · 두께 및 원산지 • 매장시 : 오동나무,향나무 (중국산) 3cm ~ 4.5cm • 화장시 : 오동나무(중국산) 1.8cm ~ 3cm 다.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거리 • 차량의 종류 – 운구리무진 : 링컨, 캐딜락 (2006 년식 이상) – 운구버스 : 현대, 기아, 대우 (2006 년식 이상) • 추가비용 : 상품별 기본 무료제공 거리 외 차량거리 추가시 10 km당 운구버스 16,000원 , 리무진 18,000원 ※ 차량 및 비용은 제공지역 및 행사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라. 서비스 제공 인력 : 골드플러스 (3명), 프리미엄 (4명), 플래티늄플러스 (9명) ※ 도우미 추가시 : 1인당 8만원 (10시간 제공, 2009년 기준임) 4. 총고객환급의무액, 상조관련자산 및 공인회계사 감사여부 (2011년 2월 28일 기준) 가. 상조관련자산 397.9억 원 나. 총고객환급의무액 355.9억 원 다. 총고객환급의무액대비상조관련자산보유비율 112% (공인회계사의 회계검토를 받았음 – 효림회계법인) 5.고객불입금의 관리방법 고객불입금의 47.9%는 별도의 계정으로 농협 외 4개의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그 외 자산도 감독기관의 관리감독하에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